증기발생기 세관 재질 결함 알고도 온도 낮춰 운전

한빛원전 3·4호기 15년동안 '불안한 가동'

원자력기술원 "관막음 허용률 상향은 안전 위협" 분석

한수원 "온도 낮춘 것은 안전 확보 위한 고육지책"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영광) 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전열관)의 재질상 문제점을 무려 15년 전부터 확인했지만 원전 가동에만 급급해 근본적인 조치 없이 원자로 냉각재 온도를 낮춰 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원자로 냉각재 온도를 낮춰 가동중인 곳은 한빛 원전이 유일하다.

한수원은 또 전문기관의 '관막음 허용률 상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 정부에 관련 기준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 안전보다 원전 가동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한빛원전 3~4호기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증기발생기 세관에 흐르는 냉각재 온도를 화씨 621도에서 614도로 낮춰 운전중이다. 기술원은 한수원이 '원자로 냉각재 온도 감소(ORT) 운전 전략 과제'에 따라 이 같은 운전 방침을 고수해왔다는 점을 '한빛원전 운영경험 분석을 통한 안전성 관련 현안의 분류와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적시했다.

기술원은 증기 발생기 세관으로 쓰인 '인코넬 600'의 재질이 약해 온도를 낮춰 운행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고온에서 부식에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혹시 모를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온도를 낮춰 가동했다는 게 기술원 판단이다.

원자력시설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원은 또 한수원이 최근 요청한 원전 가동을 위한 안전기준 완화 신청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향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원은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을 높일수록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 한수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전은 가동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증기발생기를 구성하는 8214개의 세관을 막을 수 있는 허용치를 8%로 제한하고 있으며, 허용치를 넘어서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반면, 한수원은 지난달 17일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을 8→18%로 높여달라'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했다. 원안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세관에서 결함(파손·균열)이 생기더라도 18%까지는 해당 관을 막아버린 뒤 원전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세관에는 원자로에서 뜨겁게 달궈진 냉각재가 순환하면서 세관 밖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냉각재를 증기로 변화시킨다. 원전은 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데, 세관이 깨지는 등 결함이 생길 경우 방사성물질(냉각재)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는 재질도 불량한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난데다 관막음하거나 관재생을 한 세관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세관이 얼마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빛원전측은 "안전을 위해 설계치 보다 온도를 낮춰 운전한 것이며 관막음 허용률 상향신청은 규제기관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최근 영광을 방문,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는 한빛 원전 3호기와 관련, '증기발생기는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가동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이물질 제거 뒤 재가동'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끊이지 않는 건축사 위법

광주 허위 건축허가조서 2명 적발 등 연례행사

전남 다가구주택 불법 증·개축 61명 재판 계류

건축사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건축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판단력으로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펴기는 커녕 눈앞의 이익만 챙기다 수사 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국민의 쾌적한 생활 공간과 환경 개선을 위해…수행한다',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인으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건축사 헌장 내용이 무색할 정도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건물 2개 동을 허가 없이 연결하는 증축 공사를 시행한 뒤 허위 건축허가조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축사 2명을 적발하는 등 위법 행위에 연루된 건축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관할 행정기관이 건축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를 대행토록 했음에도, 신뢰를 저버린 채 불법 증·개축 등 위법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건축사들이 적지 않은 형편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92명이 이른바 원룸의 방 수를 늘리기 위한 '방 쪼개기' 등 위법한 건축 행위로 적발돼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고, 전남에서도 다가구 주택의 불법 증·개축 행위로 건축사 61명이 적발돼 재판에 계류중이다.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 2010년 무려 155명의 건축사들이 위법 행위로 경찰에 적발됐고, 2013년에도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 혐의 등으로 55명의 건축사들이 무더기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연례행사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완공도 되지 않은 건물의 사용승인을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했던 건축사가 광주 경찰에 붙잡혔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건축상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전제로 전문 자격증을 부여한 취지를 감안,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한 건축 전문가들의 직업윤리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건축사회 관계자는 "최근 자체적 자정활동으로 불법 행위가 줄어들었고,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법안도 건축사들이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야영장 안전 점검 강화 동막해수욕장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 전국 지자체들이 야영장의 안전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24일 오전 담양군의 한 오토캠핑장의 직원들이 캠핑장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및 방재도구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전남 택시운송조합 이사장 공금횡령 고소장

광주남부경찰은 24일 전남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 10명이 조합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노사대책비 등에 대한 사용처가 불불명하다며 횡령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제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10년 넘게 이사장직을 맡아오면서 조합비 사용 내역 및 공제적용분담금 설정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횡령·배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허위 채용·운영비 횡령 혐의 대학총장 등 10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평생교육진흥원 인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인원을 채용하거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광주 모대학 총장 A씨와 학교법인 관계자 등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원격교육원 운영비 4억1000만원을 학교 법인 수입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자재 납품 공급 금품 의혹 나노바이오연구원 직원 조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원의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년 간 독점 공급하는 대가 명목으로 금품 등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 연구원 직원 A(54)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연구원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업체에 독점 납품을 하도록 해주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0·40대 청장년층 심근경색 환자 급증

전남대병원 2배 가량 늘어…스트레스·서구화된 식습관 탓

직장 스트레스와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청장년층인 30~40대 심근경색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2010~2014년 이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심근경색 환자를 분석한 결과, 30대는 2010년 112명에서 지난해 400명으로, 40대는 1180명에서 2301명으로 늘었다.

4년 만에 30대는 2.6배가량, 40대는 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령상 사회생활이 많아 스트레스 큰데다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병원 측은 분석했다.

5년간 전남대병원을 찾은 심근경색 환자는 11만8097명(연인원)이었다. 2010년 2만3166명에서 2011년 2만956명으로 줄었다가 2012년 2만1735명, 2013년 2만5300명, 지난해 2만694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환자 수는 2010년 대비 14%, 2011년 대비 24%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만3999명으로 여성(3만4098명)의 2.5배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70대가 31%(3만6425명), 60대가 25%(2만9331명)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50대는 19%(2만2298명), 80대는 17%(2만439명)였으며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 7%대였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조직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초기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전남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평소 당뇨를 앓거나 가슴 답답증,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을 느끼면 검사가 필요하다"며 "1주일에 5회 이상 30분씩 운동하고, 채소 중심의 식습관을 갖는 게 좋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어려운 행정용어 사용습관, 주민이 온라인 민원 일침

쌍나팔

○…지자체의 어려운 행정용어 사용 습관에 주민이 일침을 놓아 눈길.

○…최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주민 최모씨가 서구청 온라인 민원상담란에 '수벽갱신(樹壁更新)이 무슨 말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상무대로 현수막에 적힌 수벽갱신의 뜻을 묻는 아들에게 답하지 못했다"며 "주민센터 등에서 간혹 쓰이는 '우수무지(右手拇指·오른쪽 엄지손가락)를 찍으세요'와 같은 어려운 표현 대신 쉬운 우리말을 쓰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

○…다음날 서구청 공원녹지과는 "수벽갱신은 키 작은 나무로 만든 생울타리를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라며 "의견을 참고해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을 쓰도록 하겠다"고 설명.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20484	1	동구 소태동 산223 아파트 디동 1층 102호 61.20㎡	아파트	61,000,000 / 61,000,000	
2014타경 21579	1	북구 유림로 175, 114동 3층 304호 [동림동,삼익] 59.97㎡	아파트	91,000,000 / 91,000,000	
2014타경 22237	1	동구 필문대로12-7, 102동7층703호[계림동,아파트]59.850㎡[현황조사서상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보다전입일자빠른임차인있음]	아파트	168,000,000 / 168,000,000	관리비미납됨
2014타경 22343	1	북구 면앙로31번길 10, 105동 15층 1504호 58.01㎡[대항력있는임차인,임차인보증금전액배당못받을시배당못받는잔액매수인인수]	아파트	99,000,000 / 99,000,000	
2014타경 23292	1	북구 서하로194번 길15, 202동 9층 904호 [오치동,오치주공아파트] 38.64㎡	아파트	60,000,000 / 60,000,000	
2014타경 23438	2	나주시 대호동 1036 호반리젠시빌 101동 16층 1601호 84.883㎡	아파트	150,000,000 / 150,000,000	
2014타경 24219	1	광산구 월계동 761-3 첨단6차라인아파트 602동 3층 305호 84.83㎡	아파트	129,000,000 / 129,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4타경 24790	1	광산구 수완동 1165 357.9㎡ / 광산구 수완로106번길 21-17 1층141.42㎡ 2층106.75㎡	대 / 단독주택	509,495,600 / 509,495,600	일괄매각,수목포함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1452	1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190 1855㎡[보전관리지역,일부접도구역[도로법]개발행위제한가능,[해당부서종합민원과허가담당]확인요]	전	120,575,000 / 120,5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묵전
	2	동소 207 489㎡[보전관리지역으로개발행위가제한될수있음[해당부서[종합민원과허가담당]확인요] / 동소 229-3 1769㎡[현묵전]	전 / 전	128,706,000 / 128,706,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묵전
2014타경 5355	1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309-6 2205㎡[최선순위지상권은인수되지않고말소됨[지상권자말소동의서첨부]]	답	44,100,000 / 44,1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309-6 1380㎡	답	31,740,000 / 31,740,000	
2014타경 21319	1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633-4 1815㎡[인접필지상[633-2]에분묘[약7,8기]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정확한소재지번및지적경계등별도측량요]	전	37,300,000 / 37,3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포함,일부묘지로이용중
2014타경 21951	1	영광군 대마면 성산리 1222-2 1082㎡[분묘[평장2기]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9,855,200 / 9,855,200	수목포함석물,배롱꽃등산매각제외
2014타경 23438	1	나주시 경현동 산14-5 117819㎡[수목[매실나무]포함]	임야	209,042,300 / 209,042,300	인접지와지적경계불분명
2014타경 23582	1	북구 청풍동 900 714㎡	답	16,422,000 / 16,42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전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4타경 5355	3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426 1281㎡ 제시외 주차장 등 234㎡ / 담양군월산면담장로515-11음식점나동1층237.33㎡2층156.69㎡창고37.82㎡가동1층378.81㎡ 2-3층각356.4㎡ 4층172.76㎡ 5층72㎡ /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426-2 2935㎡	대 / 숙박,근린,위락시설 / 대	1,175,425,800 / 1,175,425,8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창고현황상64㎡
[기타]					
2014타경 19965	1	나주시 산포면 송림리 163-10 48.6㎡[대장상부속건물컨테이너창고2동및사무실은현존하지않은것으로보임]	액화석유가스충전소	9,525,600 / 9,525,600	건물만매각
2014타경 20620	1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2-67 218㎡[일부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주택및근린시설일부및창고는타인토지[780-22,780-29-780-33]에소재로보이므로정확한경계등측량요] /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32-26 97㎡ 45.5㎡ 부속건물 창고 9㎡ 제시외가추 등 30.9㎡	대 / 주택,근린시설	53,997,500 / 53,997,5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5. 4. 9.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4. 16.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공비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2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계수